



LS니코동제련 임직원, 묘목 심으며 공기정화 활동

LS니코동제련은 13일 서울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제3회 CU 투마로우 그리너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LS니코동제련은 도석구 사장과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참나무와 자작나무 등 묘목 300그루를 심었다. 도석구 LS니코동제련 사장이(왼쪽에서 6번째)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니코동제련



KRX국민행복재단, 라오스에 엠블런스 차량 기증

한국거래소(KRX)는 국민행복재단이 지난 13일 서울 한남동 주한 라오스대사관에서 티엠 부파 주한 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엠블런스 차량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왼쪽부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티엠 부파 주한 라오스 대사, 안춘엽 KRX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양대-포스코케미칼, 배터리소재 인재양성 맞손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가 포스코케미칼(대표 민경준)과 배터리소재 인재양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5일 한양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한양대는 대학원 배터리공학 과를 신설하고 맞춤형 학위 과정 '이 배터리 트랙(e-Battery Track)'을 운영한다.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대표(왼쪽)과 김우승 총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양대



풀무원푸드머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앞장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풀무원푸드머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지원 기관인 남양주시니어클럽과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리원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풀무원푸드머스 본사에서 진행된 '조리원 양성과정 실습교육'에서 시니어 참가자들이 위생 교육을 받고 있다. /풀무원



순천향대, '제자사랑 밀알장학금' 전달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13일 교내 접견실에서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 사랑 밀알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승우 총학생회 부회장, 박병현 총학생회장, 김승우 총장, 허효영 총대의원회장, 주소연 총대의원회 부회장. /순천향대



박 상 오 변호사의 엔터테인먼트 LAW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 그 콘텐츠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요소(배경음악, 효과음, 그래픽 등)를 직접 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콘텐츠는 제3자가 이미 창작한 음악, 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물론 이와 같이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사용료 등)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타인의 저작물 사용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제작되고 콘텐츠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제작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컨대, 특정인의 일상생활을 담은 콘텐츠인 '브

저작권법상 부수적복제 조항

이로그'의 경우 유명한 장소에 방문한 모습,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촬영·편집되어 콘텐츠로 제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배경으로 사진이나 영상저작물이 포함되기도 하고, 길거리에 재생되어 있던 음악 등이 그대로 녹음돼 브이로그에 포함되기도 한다. 4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의 분야에서도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등이 발생한다. 메타버스로 서울의 한 동네를 그대로 가상공간에 옮긴다고 했을 때 그 동네 안에 있는 미술품이 가상공간에도 그대로 재현되면서 복제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러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콘텐츠의 창작이나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부수적 복제 등에 관한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신설했다. 위 조항의 신설은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할 목적으로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주된 내용은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이로그에서 배경으로 아주 잠깐 영상저작물 등이 스쳐 지나가듯 포함되는 경우, 가상현실로 옮겨둔 현실의 공간에 부수적으로 미술품이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등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위 조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

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단서 부분). 어떠한 경우가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판례 등을 통해서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면, '미술관을 그대로 가상현실의 공간으로 옮겨서 사용자들이 이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부수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므로 위 경우에는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해당 조항이 창작자(=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위 조항의 운영에 있어서는 단서 조항의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바른

23만명 눈뜨는 삼성 무료개안사업, 삼성D가 이어간다

진료·수술 지원 '무지개' 재개 150명 임직원 헬퍼 봉사팀 운영

삼성디스플레이가 빛을 선물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의 무료개안사업을 이어받아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지개는 무료지원개안사업의 약자로, 임직원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삼성이 1995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활동으로, 2020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가 맡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가게 됐다. 무료개안사업은 그동안 눈 질환과 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23만명의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무료 안과 진료 및 수술을 지원해왔다.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앞서 안과 질환에 대한 의료비 혜택이 확대되는 등



지난 2일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에서 무료개안사업 재개를 기념해 열린 사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임직원들의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국내 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무지개 사업 분야와 대상을 전문적인 안과 진료와 검사, 수술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마음 편히 병원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무지개 헬퍼' 봉사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0여 명의 임직원들로 이뤄진 '무지개 헬퍼' 봉사팀은 사업 대상자가 주거지역에서 병원까지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차량 지원과 이동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는 '무지개 사업' 재개를 기념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5월 2일을 '무지개 데이'로 지정, 사업장 내에서 경연 및 임직원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어린이 초청행사,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등을 개최,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구자학 아워홈 회장, '사업보국' 뿌리 내리고 영면

4일간 회사장으로 장례 치러 유족·임직원 애도 속 영결식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이 15일 영면에 들었다. 지난 12일 별세한 구 회장의 영결식은 15일 오전 7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아워홈 임직원들의 애도 속에 진행됐다.

고인의 배우자 이숙희 씨와 장남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막내딸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 장·차녀인 미현·명진 씨가 자리했다. 강유식 고문(LG연암학원 이사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4일간 회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사장으로 치러졌으며,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및 약력 소개,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전개됐다.

장지는 경기 광주시 광주공원묘원이다. 고인은 1930년 고 구인회 LG

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진주고등학교를 마치고 해군사관학교에 진학, 1959년 소령으로 전역했다. 군복무 시절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총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호국영웅기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1960년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호텔신라, 제일제당, 중앙개발, 럭키(현 LG화학), 금성사(현 LG전자), 금성일렉트론(현 SK하이닉스), LG건설(현 GS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했다.

이후 2000년 LG유통(현 GS리테일) FS사업부(푸드서비스 사업부)로부터 분리 독립한 ㈜아워홈의 회장으로 취임해 20여년간 아워홈을 이끌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